



재정비하고 애실을 기해 강한 협의회로 키울터 ●

서울협의회 | 이귀향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힘들었던 기억만 남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첨단 업종만 유치가 가능한 지역 여건상,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타지로 내몰려 이제 명목만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현재 근무 중인 기술인들도 열악한 근무조건과 기업주의 냉대를 받고 있으며, 비전이 없는 직업에 대한 회의로 근무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인원 동원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여,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엄두도 내지 못해 행사 한번 제대로 못 치르고 한 해를 보냅니다.

협의회는 발전 방향을 찾고 더욱 분발해야 될, 이 시기

에 제 안일한 생각이 협의회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지도나 민간 합동 단속을 나가 보면, 아직도 환경관리 상태가 미흡하여 미신고나 비정상 가동으로 적발되는 예가 있고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회원사를 방문하여 여러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할 것이며, 새해에는 남아 있는 모든 회원사를 규합하여 재정비하고 애실을 기해 작지만 강한 협의회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한환연의 모태가 되었던 우리협의회가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의회가 거듭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회원들과 함께... ●

전북협의회 | 정명운 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본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신입회장 정명운입니다. 한상운 전임회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새로운 임원진 및 회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기술인들의 질적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볼 때,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등 180여개 국제환경 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환경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

어, 우리 기업과 기술인이 환경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환경법규는 지속강화되는 추세이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협의회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원사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실시하고 또한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협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충고와 고견 부탁

경남협의회 | 황수남 회장

2006년 새해가 힘차게 떠오릅니다.

기대와 설레임과 함께 새해 회원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 많은 세월 환경관리현장에서 불철주야 땀 흘리셨
던 우리회원들께 아낌없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난 16년 동안을 관심과 끊임
없는 협조로 협의회를 지켜온 회원들과 전국 19개 협
의회중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
신 전임회장단과 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희생에 의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지
역사회의 환경기술인으로서 지역의 환경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인정받
기 위하여는 내 것이 없고 내 몫이 작더라도 유사한 다른
환경단체보다도 환경관리와 환경기술의 사회환원에 대
하여 구심점이 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합시다.

아무쪼록 본 협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충고와 고
견을 보내주시면 그 뜻을 알차고 보람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임원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창립 20주년을 경남협의회회
원들 모두가 축하합니다.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장 확대

경북동부협의회 | 박주영 회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회원 여려분
의 많은 협조로 아무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장단의 적극적인 도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진년 새해에도 회장단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리며, 새
해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 유사업종, 동종타사 간 소규모 교류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산세공정이 있는 업체들의 정
보교류회를 구성하겠으며, 그 외 여러 업종의 회원님들
(5개사 이상) 모여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 정보교류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나, 지도점검
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본 경험이 있

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웃 회사와의 개별 정보교류도 중
요 하지만 회장단에 정보를 주시면 그 가치에 따라서 전
회원사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전파 하겠습니다. 회
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셋째 : 각종 사례 공유입니다. 지도점검시 지적되었던
사례나 환경기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입니
다. 정보의 부재로 이웃회사에서 지난번 지적되었던 사
항을 그 옆 회사에서 새로이 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나의 아픔이 우리 회원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가 수집 되면 사례
집을 발간하고 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 회원 참여의 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체육대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회원 여러분이 직접 참
여하는 장을 보다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은 참석
하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본회의 발전의 원천이며, 또한 개인
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속에 즐거움과 보람이 있으
며, 더불어 향기로운 열매가 열립니다.



오랜 전통과 경륜을 바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협의회 | 장진우 회장

유난히도 굵직한 사건의 뉴스가 많았던 2005년도 저 물어가고 병술년 개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별로 크게 한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시간의 흐름은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2005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협의회를 대표하여 부산지역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기술인회의로사항을 기업주와 관청에 여과없이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환경기술개발센터(betec)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술인협의회 수익사업을 도모하기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2006년에는 알찬 결과가 올 것이라 기

대합니다. 또한 대학교 및 기술학원과 연계하여 미취업 환경기술인을 구직을 원하는 회사에 취업시켜 근무케 하였고 산업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타업종의 기술자격증을 획득하므로 환경기술인이 회사내에서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005년 한해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어찌보면 일보전진을 위해 한걸음 후퇴가 된 것 같습니다.

협회의 기금이 열악하다보니 모든일이 화려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해 조용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므로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나은 비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회원여러분 참여가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많은 관심으로 협의회가 회원수는 적지만 오랜 전통과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알차고 재미있는 협의회로 거듭나 봅시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웃음 가득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대구경북협의회 | 도주환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아침 태양이 밝아왔습니다.

첫째, 낙동강 수계보전을 위하여 총량 오염 관리에 초점을 두고 환경교육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행정관청과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조하여 중소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인이 정규 배치되지 않는 사업장에 기술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경비절감과 오염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산학관 협력체제를 유지 존속하여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넷째, 환경관련법규 개정해설 세미나와 새로운 환경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인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경관리가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임원 및 회원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의 목표라면 해결가능토록 민, 관협조체제로 조성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간 우수사업장 선진 견학을 참여하여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와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과 지역환경현안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대책강구보다 예방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 손실 없이 환경보전발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말 한마디보다 스스로 행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정보 수집·관리, 양질의 정보를 제공

경기서부협의회 | 김현철 회장

우리는 다사다난 했던 산업화 시대의 을유년을 뒤로 하고 희망에 찬 병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국토와 강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급기야는 인류의 생존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수질오염, 매립지 오염 등 지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 문제로 그 범위가 날로 광역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급증하면서 환경연구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통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환경과학 및 공학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분야 기술인 및 종사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기술인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변화에 순응·대체

광주전남협의회 | 방국진 공동회장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05년 한해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농민들의 절규를 들으며, 함께 한없는 고통과 비애를 느낍니다. 또한 인권존중에 대한 불감증과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우리 사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첨단과학과 웰빙이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유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협의회 내부적으로도 '04년 환경기술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문제점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

고, 진행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민간단체와 교류를 통해 우리 협의회와 역할 등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제 단순히 법규 교육 등 내부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도 이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체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그런 활동이 상호간 신뢰를 조성하여 투명성이 유지된다면 지도단속이란 단어는 우리 사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우리 환경전문가의 단체인 각 지역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여 다시 한 번 매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고유가, 물가상승 등 경제 불안과 대외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힘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변화에 순응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

대전충남협의회 | 김금중 회장

환경기술인 여러분!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많은 일들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주위를 지나갔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불안 등 불안한 경제적 현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기술인들은 환경보전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환경보전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대전충남협의회도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릴 것 입니다. 첫째, 환경기술지원단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협회 회원사 인력pool을 이용한 환경기술지원단의 활성화로 환경업무의 애로를 겪고 있

는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환경기술지원단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환경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회원사 배가에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 확보에 노력하여 환경기술인 협의회에 응집된 힘과 조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회원사 배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사 여러분 및 환경기술인들의 열정과 역량을 모아 활기차고 역동적인 환경기술인 협의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라며, 새해에도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회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인천협의회 | 김명제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최근에 발생한 배아줄기세포로 인한 세계적인 논란과 사상초유의 폭설로 일상생활을 마비시켰으며 반면에 우리 환경기술인에게 가장 뜻 깊은 환경기술인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10월 10일을 환경기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환경기술인으로서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 중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힘과 위상이 더 한층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 인천은 경제특구로 인하여 각종 환경규제가 더욱더 강화 되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특별관리, 악취 특별관리, 총량관리 제도시행 등 강화되

는 규제제도에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현실로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회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조직을 개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게 TF 팀을 구성 세분화하여 운영코 저합니다. 환경관리 실무에 필요한 기술실무 교육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매 분기 실시할 것이며 또한 정부 정책사항과 현장적용에 필요한 실무부분에 대하여 실무담당자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과 환경관리가 열악한 업체에 대하여 환경전문 기술진을 구성하여 필요한 업체에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회원 전용 방에서 회원들만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기술인, 책임지는 협의회

경기북부협의회 | 김완배 회장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것은 아직 우리 속에 희망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술인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나는 젊은 시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꼭 일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가짐과 행동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때론 이 계획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올 한해를 잘 마무리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

을 보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이 책임(accountability)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무책임한 말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을을 어둡게 만들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의 문제는 크게 보아 우리 기술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저 일선에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기술인이 아니라 회사에 꼭 필요한 환경지킴이로써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에서 있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술인들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책임 있는 기술인, 책임지도협의회”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책임 있는 기술인, 책임지도 협의회” 기술인의 힘찬 합성이 사회 곳곳의 어둠을 깨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술인 가족 모두의 가정에 평안함과 따스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원입장을 대변, 가장 선호하는 단체가 되도록...

경기도협의회 | 이성호 회장

환경기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병술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본 협의회는 여러 회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갈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경법률고문 변호사 및 기술자문위원 구성으로 회원들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해결토록 계속 추진 할 나갈 것입니다.

둘째, 관내 여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세미나, 신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셋째, 본 협의회와 자문교수님들과 함께 홈닥터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기술인에 기술향상과 협의회와 활성화를 가일층 매진 하고저 합니다.

넷째, 협의회와 활동 및 우수회원 업체를 선발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회원들의 위상강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를 통한 회원배가운동 전개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에게 신기술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임원들의 활동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여 회원에게 다가가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 병술년은 작년 보다 더 어려운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설계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진일보 도약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도협의회는 무엇보다도 회원입장을 대변할 것이며,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으로 위기를 극복

경남동부협의회 | 공효식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한 을유년을 보내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협의회회의 내실을 다지기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항상 새해 처음 시작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 처음 시작을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양산이라는 작은 중소도시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이루고 있지만 작지만 알찬 협의회가 될 수 있

도록 늘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주시는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행사에 항상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오염 방제훈련 및 오염사고 때 보여준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도 어려운 경제여건은 언론 등에서는 나아진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회원 여러분께서는 작년만큼 아니 더 어려울 것 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으로 위기를 극복하여야 만이 진정한 전문가요 참 기술인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는 협의회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회원 상호간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합시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친화 공단으로 탈바꿈하자

반월시화공단협의회 | 권기태 회장

회원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기술세미나, 워크샵, 울릉도 환경탐사 등 10회 이상의 기술교육으로 회원여러분의 기술향상과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는 악취방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반월시화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5월 15일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방지시설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방지시설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회원사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혁신위원회의 환경미니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방지시설 개발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환경닥터제의 확대시행 요청에 따라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 4,000여 업체에 1회 이상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개선의 바로미터인 악취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1,200여건이던 민원이 2005년도에는 600여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머지않아 반월시화공단이 환경친화공단으로 탈바꿈된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 합시다.

새해에도 회원사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위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는 한해가 되도록

경북북부협의회 | 강명호 회장

병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과잉공급과 단가 하락으로 많은 기업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하였고 우리 환경 기술인은 더욱 더 입지가 좁아지고 환경 관련 학과의 인기가 하락되어 젊은 환경학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가온 새해는 우리 환경기술인이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환경기술인의 업무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와 기후변화 협

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환경기술인이 아닌 동력 설비 관리자가 에너지 절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용수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환경관리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가 배출구 관리가 아닌 전공정 관리는 물론 원, 부자재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기술인이 가지 있는 기술이 독자적인 기술로 인정 받기 위한 노력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환경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서는 환경방지시설의 설계가 건축이나 토목설계와 같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노력은 물론 서로 힘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좀더 분발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

제주협의회 | 김종환 회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신년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실로 단조롭고 변화 없는 삶중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년은 인생에 심기일련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해 배운 점도 많고, 이로 인해 폭넓은 활동의 영역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중요한 일을 놓치기

도 해 반성하기도 합니다.

늘 분주한 만큼 환경관련한 일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많이 나아지겠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협의회를 아끼고 이끌어주시는 연합회 이상호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작은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크게 두드러지는 사업은 해오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고민 속에서 1년여 시간이 짧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분발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슬기로운 지혜로 다시 성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울산협의회 | 임주원 회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그 무슨 명분을 대든 간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타성의 늪에 갇혀 이내 시들고 맙니다.

급기야는 그저 무가지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삶을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 살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시작이 뒤따라야 합니다. 빗물이 흘러들어 자연스레 물웅덩이의 물갈이가 이뤄지듯 인간사회라는 웅덩이도 그런 신선한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해를 맞아 다시금 새 출발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의미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속의 우리들 역시 더욱 높고 크게 뻗어가기 위해서는 한군데만 괴어있지 말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직위와 승진, 출세와 같은 탈바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새 출발의 방향은 보다 깊고 질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합니다.

지난 을유년을 돌이켜보면 울산협의회는 울산지역이 생태도시, 문화도시로 환생하는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렸고, 이는 전국체전과 IWC 총회, 국제양궁대회 등을 통해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전 국민과 세계인의 가슴속에 확실히 심어준 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협의회 회원 한분한분이 최고의 장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되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기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울산협의회 임원진은 더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런 의지라면 결과는 명약관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내에서 환경기술인의 업무영역을 넓혀 경쟁력을 갖추자.

강원협의회 | 송인수 회장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봅니다. 국내 우수의 기업들은 이미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환경 경영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고 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기술인은 기업에서 각자의 역할 중에 환경을 규제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닌, 환경경영의 실천 전략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투자와 원칙을 수립하여 환경경영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기회경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젠 환경기술인이 기업 내에서의 좀더 활동 영역을

넓혀 환경성과 공공성을 포함한 사회적 기대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의 임무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키 위해선 우수한 환경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수준이 향상된 만큼 우리 환경기술인도 기술적, 전문적 지식수준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주요사업계획

- 1)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와 회원 인적 및 기술자원 구축
- 2)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신속한 정보 및 기술교류
- 3) 지역환경개발센터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 지원 실시
- 4)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한 지역환경보전활동 전개
- 5) 우수 환경경영사례 발표회 개최 및 견학 제공